

## 2018년 11월 18일 “복음의 여정(7-감사절) 발견된 감사”(시 136:1-3; 21-26)

### <도입>

사람이 부정적인 것들(비난이나 무시당함 등)에 민감할수록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세계의 귀한 가치를 보는 안목이 열립니다. 가치를 발견할 때마다 사람은 행복과 감사를 느낍니다.

시편 136 편의 시인이 감사를 느낀 것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하심, 창조와 구원과 인도,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헤세드)이었습니다.

### [1] 136 편: 단락

- 1~3 절: 하나님께 감사! (선하심, 신들 중의 신, 주들 중의 주: 으뜸이심)
  - 4 절: 기이한 일을 행하심 → 5~25 절까지 기록
  - 5~9 절: 창조
  - 10~22 절: 출애굽 구원 – 광야 통과 – 가나안 기업
  - 23~25 절: 비천함과 위험 속에서 기억하시고, 건지심. 차별 없으심
- 26 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하늘의 하나님 – 포로기 때 용어)

시 136 편 모든 내용에 대해 감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원한 인자하심(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은 인자하심(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1-3 절). 어떤 최상보다도 더욱 위대한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감사의 이유는 자신이 얻은 이익과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성품)에 있습니다.

### [2] 하나님 사랑에 감사?

시인은 매절 왜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할까요? 그분이 주신 선물과 혜택 때문이 아닌 **그분의 성품 때문에** 삶에서 감동과 변화와 행복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대상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합니다. 나의 가치를 더 느끼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의 경제적, 예술적 가치는 0에 가까울지라도 준비하는 사랑의 마음과 표현은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이가 주는 선물보다, 자기 존재를 내게 열어주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분 사랑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시인처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사랑은 감추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면 무엇보다 사랑의 성품을 내게 열어 주시고 나의 가치를 무한 높여주고, 참 행복으로 이끄심을 발견합니다. 이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3] 감사의 증거

감사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께 감사한다면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의 사랑에 내 인생을 걸기 때문에 내 인생 목표도 사랑, 동기도 사랑이 되도록 원하고 애쓰게 됩니다.

신뢰는 전천후 특징을 갖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질 때만 감사하고 신뢰한다면 그것은 내게 이득이 되는 만족에 잠시 들뜬 것 뿐입니다. 나를 먹이실 때는 감사하지만 모두(선인/악인)를 먹이실 때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에 신뢰가 될 수 없습니다. 기쁘고 기억하고 싶은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지만 슬프고 잊고 싶은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내 존재를 하나님의 감사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알코올 중독방지 모임(AA)에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이 걸리는 질병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내 병(알코올중독)을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12 단계가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병자이지만, 그분의 사랑 때문에 자기 인생이 고귀한 선물임을 배웠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신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평’입니다(브래넨 매닝). 마 20 장 비유: 불평하는 자는 하루 열심히 일한 후에 늦게 온 일꾼과 똑같이 pay 를 받으니까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은 왜 이리 불공평한지 원망과 회의를 느낍니다. 왜 나는 적게만 채워지는 삶을 사는 가, 빈핍한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울무에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인의 본성으로는 은혜를 터득하고 누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시는)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을 역사 안에서 드러내셨습니다.

2000 년 전에 유대 땅에서 젊은 청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온 세상과 역사에 조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거대망상과 같은 증언을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었죠.

우리는 그분의 죽음 속에서 찢긴 살과 흐르는 피를 받아들일 때 우리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무언지를 발견할 때 불평과 회의를 넘어 감사와 신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내가 드리는 감사를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것들을 감사합니까? 나의 감사의 내용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2. 나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있어서 장점을 보고 감사합니까? 그것이 왜 감사의 제목이 되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어떠합니까? 나는 그분들의 무엇에 감사하나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감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3. 이 세상의 사람과 피조물은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높아진다는 뜻일까요? 하나님 사랑을 더욱 알수록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해 봅시다.